

월요광장



정유빈
코리아컨설팅 대표

남녀의 첫 만남이 주선된 자리에서 상대방의 취미를 꼭 물어보던 시대가 있었다. 왜 상대방의 취미를 물어야만 했을까. 그건 나와 맞는 사람인지 짐작하기 위함이 크다. 반면 취업이나 진학 등과 관련한 면접에서도 의례 취미생활에 대한 질문이 빠지지 않는다. 이때 취미를 물어보는 이유는 평소 시간의 활용 방법,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 대인관계 등을 파악해 보고 싶은 이유에서 일 것이다.

영국인들이 '가장 위대한 영국인'으로 꼽은 윈스턴 처칠은 취미 애호가였다. 그는 그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벽돌 쌓기, 정원 만들기 등 다양한 취미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중 그가 가장 애정하는 취미생활은 그림 그리기였다. 애연가이면서도 애주가였던 그가 쓴 에세이책 '취미로서의 그림 그리기'에서 그는 자신의 취미생활의 유익함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취미생활을 한 이유가 남다르다. 그는 나름의 생존을 위한 지구책으로 취미생활을 택했다. 평생 우울증을 앓아온 그는 스스로 '검은개'라 부른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했

생존을 위한 가족의 취미생활

다. 그는 취미생활 덕분에 좋아하는 글쓰기로 노벨문학상을 받았으며 9번의 장관과 2번의 총리 임기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아마추어 작가로서 사후 소더비 경매에서 약 30억원을 호가하는 그림을 그린 작가가 되기도 했다.

흔히 취미생활은 무력감과 우울감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으로 추천되곤 한다. 한 개인이 취미 활동을 함으로써 온전히 그 활동에 몰두하면서 뇌를 쉬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 및 신체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은퇴 후 무력감을 느끼고 TV만 시청하던 아버지를 아들과 가족이 나서서 그림을 그리게 하고 소셜 미디어를 하도록 했다.

'나의 손자를 위한 그림 그리기'란 내용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손자들을 위해 할아버지는 그림을 그리고 할머니는 글을 쓰기 시작한 이 취미생활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신박한 생각과 특별한 재능이 더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무언가를 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꾸준하게 해온 활동에서 비롯되었음이 빛난다.

최근 조사 자료에 의하면 가족 간 하루 평균 대화 시간에 대해 가장 높게 응답한 시간이 30분 미만이라고 한다. 이 짧은 가족 간의 대화 시간에 비해 개인의 TV 시청 1일 평균은 약 3시간 정도, 10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은 무려 약 8시간이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국민 생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연령층에서 여가시간에는 개인별 미디어 이용 시간이 가장 많으며 40대 이상은 미디어 이용시간이

무려 70%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니 식당에서 마주 앉은 남녀 또는 가족이 대화 없이 핸드폰을 보며 온라인 세상과의 연결을 끊지 않은 채 식사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가족이 함께 하는 취미 생활이 있다면 분명 가족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것이다. 가족이 함께 해야 할 취미가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몸을 쓰는 활동과 연결되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취미 생활 하나로 이런 통계 수치와 가족간의 대화 부족의 해결책이 되어 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팬데믹 이후 4차 산업과 인공지능(AI)의 급진적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사회에서는 취미생활은 인류의 생존에 더 긴밀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개인의 취미가 개인의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듯이 가족의 취미는 어쩌면 가족의 생존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어린이 날', '아버이 날', '부부의 날', 그리고 UN에서 지정한 '세계 가정의 날'이 연달아 있는 5월은 그야말로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달이다. 누군가와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대화가 필요할 때라고 곧잘 답을 한다. 대화가 부족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가족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가족 구성원간 서로 대화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굳이 대화가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가능한 활동부터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직 가족의 취미 생활이 없다면 오는 가정의 달 5월을 핑계로 말이다.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시간은 벌써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나는 자꾸 시계를 훑거리다가 가만히 자리를 빠져나왔다. 왠지 한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홀로 빠져나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친구들이 모처럼 회포를 푸는 자리가 아닌가. 어렵게 시간을 맞추고 의기투합하는 자리였는데 하필 일이 생기고 말았다. 나는 거의 참석을 못 하거나 한다고 해도 중간쯤에나 갔다가 끝날기도 전에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얼굴이라도 봤으니 그게 어딘가. 톡톡 미련을 버렸다.

리조트 밖은 고요했다. 바다는 어둠에 잠겨 있고 그 끝에 불빛이 가물거렸다. 바닷가를 따라 정갈히 다듬어 놓은 길이 멀리까지 구부러져 돌아갔다. 나는 잠깐이라도 저 길을 좀 걸어볼까 하다 이내 관두었다. 대신 이다음 어느 날, 아직도 해가 중천에 있을 때쯤 이곳에 와서 밤이 깊도록 슬기장 놀다 가리라, 마음을 다독였다.

차를 찾아 주차장 쪽으로 가는데 건너편 언덕배기에

헤드라이트

높이 솟은 건초뿔이 보였다. 서둘러 오느라고 미처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눈앞에 비상하는 새의 형상을 한 높다란 지붕이 푸르스름한 빛을 뿜고 있었다. 아마도 최근 지어졌다는 그 음악당이 듯했다. 세계적인 규모라고 알려진 저 클래식 음악당은 예술의 도시를 꾸꾸며 일궈낸 이곳 사람들의 긍지가 자부심일 것이다.

한려수도 아름다운 해안, 그 경관만 해도 이미 천혜의 명소가 할진대 저토록 근사하고 세련된 공연장까지 두루 갖추고 있으니, 참으로 환상적인 조합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다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했다. 이다음 어느 날, 저 음악당 객석에 앉아 감미롭고도 우아한 시간을 한량없이 누리 보리라.

나는 사뿐사뿐 주차장을 향해 갔다. 어둑어둑한 주차장엔 차들이 빼곡했다. 이 많은 차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내 차는 또 어디쯤에 있는 건지. 나는 기우똥기우똥 두리번두리번 차를 찾아 헤맸다. 어둠 탓이기도 하고 내가 신은 하이힐 탓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발 아래 깔린 자갈들이었다. 아무리 삼삼삼삼 걸어도 무사히 통과하기는 쉽지 않았다. 우뚝툼툼한 바닥을 더듬어 겨우 차에 탔다.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을 맞추었다. 지금부터 좀 세계 밖으로 두 시간 후쯤엔 집에 도착할 것이고 썼자마자 바로 누워편 시너 시간은 잘 수 있을 것이다. 헤드라이트를 켰다. 빛은 멀리까지 뻗어 나갔다. 순간 나는 멈췄다. 불빛에 드러난 몇 개의 현수막이 뜬금없이

눈앞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강제수용 결사반대', '단결 투쟁' 굵게 흘려 쓴 붉은 구호들이 허름한 집들 사이에 넘처넘처 걸려 있었다. 그것은 형식처럼 붉고 맹서처럼 굳건해 보였다. 담배라던 '민박집'이라고 써놓은 글귀가 멀뚱히 나무끼고, 그 뒤로 곧 렬려 나갈 듯 숨죽인 집들이 낮게 웅크리고 있었다. 검게 솟은 나무그림자가 지붕들을 덮고 그 틈새로 신음처럼 낮은 읍조가 흘러나오는 듯했다.

나는 갑자기 머리가 핑했다. 이 아름다운 항구에 저토록 완강한 외침이라니. 사정이나 어찌 됐건 아직 해결되지 못한 난제들이 밤을 새워 필력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득 앞을 막아선 붉은 구호들이 우르르 나를 에워싸는 듯싶었다. 갈 길 바쁜 나그네일랑정 불되고 하소연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느닷없이 억류당한 처지가 되어 꼼짝할 수가 없었다.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방, 잘 뒤인 산책로, 근사한 관망. 그런 것들이 어쩌면 저 구호들을 외면한 결과는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저 비정한 도발에 뒷덜미를 잡힌 듯 십사리 자리를 뜨기가 어려웠다.

나는 한참이나 불빛에 비친 현수막과 낮은 지붕들, 그 위로 펼쳐진 푸른 날개를 눈으로 더듬어 보았다. 어스름 스산하고 적막한 붉고 검은 밤. 나는 쫓기듯 가속 페달을 밟았다. 바퀴 아래서 자갈들이 으스스리지는 소리가 들렸다.

기고

모두가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



노채영
광주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여성과 남성은 신체적인 특징이 다르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조건과 상황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도시정책은 성별로 차이를 반영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계획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4년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 104곳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진행 과정까지 차별적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의미한다. 즉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5개 자치구 모두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고 여성친화도시사업 선도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광역 차원에서는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참여, 돌봄, 안전 및 일자리 영역을 중심으로 여성가족친화마을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국 단위에서 대표적 선진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여성가족친화마을사업은 지역 여성들이 중심이 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풀뿌리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여성친화도시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2024년에도 8개 공동체의 여성가족친화마을이 선정되었다.

특히 광주의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사례는 전국적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공적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틈새돌봄을 책임지는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참여단과 같은 실질적 풀뿌리 조직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과 마을 곳곳에서 방과 후, 방학 등 돌봄공백을 메워주는 상시돌봄, 일시돌봄, 긴급돌봄 등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크다.

마을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여성이 지역의 주체로 성장한 데는 마을돌봄 활동이 크게 작용했다. 자기 생활적 요구에서 시작한 돌봄은 스스로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국가와 시장이 아닌 공동체 돌봄의 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특히 여성가족친화마을 돌봄은 코로나 시대 공적돌봄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근접성'과 '신뢰', '관계'라는 마을돌봄의 강점을 절실히 보여주었다.

공공적 시각을 체득하는 사회적 활동을 통한 자아실

현과 다양한 모임과 교류, 상호돌봄 관계가 활성화되는 성과도 있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영역할 고착화를 강화시킬 우려 역시 공존하며 여성의 헌신에 기반해 운영돼 온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돌봄은 중단될 수 없는 기본권이기엔 단발적 공모사업 외 자발적 마을돌봄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친화마을 지원체계로써 마을공동체 성 인지력 강화, 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및 현장 컨설팅을 위해 전문가를 배치하고 코칭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시민의 일상적 삶에 성 평등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시책사업 과제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실현시켜 나갈 계획이다.

여성친화도시가 성 평등 가치에 머물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발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 차원에서 지속적인 활동이 중요하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참여단의 자발적·적극적인 활동,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단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여성친화도시가 지역 정책 그 자체로 마을 곳곳에 번지고 스며들어 시민이 직접 체험하도록 형성성, 배려, 친환경, 소통 등 여성친화도시의 가치를 실현하는 영역별 핵심사업을 발굴·실천하고 일반화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한다.

社說

'에타' 막바지 전대병원 신축, 통 큰 지원 기대

전남대병원은 전국에 있는 국립대병원 가운데 건물용 가장 오래돼 시설 노후화가 심하다. 여기에 의료 기능이 병동 별로 흩어져 있어 진료는 물론 환자들의 불편이 크고 악명이 높다. 이렇다보니 새 병원을 짓는 것이 전남대병원의 숙원이다.

전남대병원은 ICT 기반 스마트병원을 목표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신축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에타) 조사가 필요한데 지난해 2월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에타를 받고 있다. 당초에는 1조 2146억원을 들여 5개 병동과 주차장을 허물고 1300병상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1070병상으로 병상수를 줄이는 대신 임상실습·수련교육 등 교육시설과 기초 연구 및 바이오헬스산업 등 연구시설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수정한 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막바지 에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대병원 신축안이 에타를 통과하는 것은 수요나 명분면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거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과도 맥을 같이 한다. 열악한 의료 시설로 인해 전남 주민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는 최하위 수준이다. 인구 10만명중 치료가능 사망률이 서울 36.36명인데 비해 전남은 44.08명이고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서울(33.6명)에 비해 전남이 71.2명으로 두배 이상 높다. 전남대병원은 광주·전남의 핵심 의료시설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건강 격차 해소의 첨병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대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산대병원의 신축 비용 7000억원 전액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 명분이었다. 따라서 에타 조사 막바지에 있는 전남대병원에도 통 큰 지원을 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 더구나 전남대병원 이전에 제출한 수정안에 담은 연구 시설 강화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른 임상 및 교육시설 공백을 메우는데도 도움이 된다.

5·18기념행사, 관련 단체 화합의 장 돼야

오월단체와 광주시민사회 간 갈등 탓에 분열됐던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5·18 행사위)가 명실상부한 위상을 되찾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지난해 행사위에 불참했던 공법 3단체가 행사위 참여를 표명함에 따라 올해 5·18 기념행사는 관련 단체가 지금까지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18유족회, 부상자회, 공묘자회 등 5·18 공법 3단체는 최근 입장문에서 "5·18 공법 3단체와 기념재단은 시민께 심려를 끼쳤던 지난 일들에 대해 마음 깊이 유감을 표시하며 2024년 제44주년 기념행사를 포시하며 2024년 제44주년 기념행사에서 시인과 시인사회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공법 3단체는 지난해 2월 5·18부상자회와 공묘자회(사)특전사동지회와 화해 행사 명목으로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열었다가 시민사회와 갈등을 빚자 5·18행사가 주최하는 5·18 기념행사에 불참했

었다. 5·18행사위 역시 두 공법 단체를 행사위에서 제명했으며 5·18유족회 또한 두 공법 단체가 불참하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행사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참가하지 않았다. 두 공법 단체의 공동선언문 폐기와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해온 5·18 행사위는 이번 입장문과 관련, 30일까지 공법 3단체의 행사 참여 여부와 운영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낼 방침이다.

5·18 44주기를 앞두고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단일된 목소리를 내야 할 오월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가 불협화음을 내며 반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 진영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과거 갈등을 딛고 올해는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행사위는 전향적인 자세로 참여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공법 단체 역시 공동선언문 폐기 등을 포함한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올해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정해박해(丁亥迫害)는 1827년(순조 27년) 정해 년에 있었던 천주교 박해를 일컫는다. 전남 곡성을 시발로 경상도, 충청도, 한양에까지 사건이 파급돼 많은 신자들이 투옥되거나 죽임을 당했다. 이보다 앞서 1801년(순조 1년)에는 조선왕조의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인 신유박해(辛酉迫害)가 있었다. 당시 노론 강경파들은 정조 통치기에 급부상했던 남인계 인사들이 천주교에 작·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을 벌미 삼아 탄압을 가했다. 신유박해 이후 천주교 신자들은 전국의 산간벽지로 흩어졌다. 당시 곡성에서는 성이 곡성이 되었다. 신유박해 이후 천주교 신자들은 교우촌을 일구며 신앙생활을 지켜갔다. 그러나 교우촌에서 사소한 다름이 발생했는데,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만다. 누군가 관아에 밀고를 했고 안타깝게도 500여명 신자들이 투옥되거나 고문을 당한다. 얼마 전 정해박해를 다룬 김탁환 작가의 장편 '사랑과 혁명(전 3권·해남)'이 제 27회 가톨릭문학상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오랫동안 잊혀진 역사였던 정해박해를 소설로 쓰게 된 데 대해 김 작

가는 "소설가라면 신과 인간의 문제는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다"며 "곡성과 인연을 맺으며 '정해박해'를 알게 됐는데 언젠가 소설로 형상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2018년 곡성과 첫 인연을 맺고 2021년 귀촌한 김 작가에게 '사랑과 혁명'은 의미 있는 작품이다. KIST 등 대학교수로 재직하며 줄곧 글쓰기와 문학을 가르쳤던 그가 곡성에 터를 잡게 된 것은 생태문제 때문이었다. 섬진강과 보성강 등 자연환경이 좋은데다 생태활동이 활발한 곳에서 글농사와 논농사를 일구며 '가장 알맞은 삶'을 추구하고 싶었던 것이다. 곡성수당은 1958년 정해박해 진원지 옥터성지에 지어졌다. 특히 김 작가의 텃밭이 딸린 집이 성당 바로 뒷마당과 이웃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뭇 이채롭다. 박해가 있는 곳에는 늘 그럴듯 '도도한 혁명'과 '민중의 사랑'이 있는 법이다. '다른 세상을 꿈꿨다'는 이유로 죽거나 투옥돼야 했던 시절은 아مان의 시대다. 그런 시대가 다시 오지 말란 법이 없다.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